

韓國에 있어서의 發展的인

出版活動과 이의 是正方案 (3)

張 一 世, 譯

國立圖書館

韓國에는 사실상 두개의 競合하는 國立圖書館이 있다. 그들의 奉仕 對象이 비록 다르다 하더라도 國立中央圖書館과 國會圖書館은 總括的으로 廣範圍하고 깊이 있는 研究用 藏書를 發展시켜야 할 義務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藏書를 構成하기 위하여서는 莫大한 費用이 들고, 그리고 그들의 性質上 자주 使用되지 않는 資料들이라 할지라도 매우 根本的인 構成要素들인데 그중의 어떤 圖書나 雜誌는 단 1種만 가지고도 全韓國에서 必要로 하는 것을 充足시킬 수 있다.

(1) 國立中央圖書館은 스스로 “公的”인 國立圖書館이라고 規定하고 있다. 이 圖書館은 1923년에 設立되었으며 40년동안 韓國의 國立圖書館이라는 名稱을 지니고 있다. 이 圖書館은 文教部 管掌아래 運營되고 있는데 1963년에 公布된 圖書館法에 의하여 規制되고 있다. 즉

國家에 관한 文獻의 蒐集 및 保存

國內外書誌의 作成 및 그의 紹介

圖書館資料의 國際交流

圖書館學에 대한 調査·研究

他圖書館에 대하여 圖書館業務에 관한 指導및援助 現在 40萬藏書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 西洋圖書는 35,000卷이고 145,000卷은 古書 및 稀觀本이다. 이 圖書館은 全世界의 여러 圖書館들과 活潑한 交換業務를 하고 있고, 뒤에 더 記述할 書誌奉仕業務를 遂行하고 있으며, 이 나라의 圖書館界에서 올바른 指導의 役割을 하고 있다. 이 圖書館은 圖書館에 規定된 納本制度의 惠澤을 받고 있고, 複寫業務를 하고 있으며 一般大衆에 대한 參考業務와 貸出業務도 하고 있다.

國立中央圖書館이 이러한 活動을 다하기 위하여 68名의 正規職員과 20名의 臨時職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23名은 專門職司書教育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圖書館은 1923년에 建立된 것인데 우리들이 낡은 建物에서 볼 수 있는것과 같이 모든 不充分한 施設로서 가득 차

있다. 가까운 將來에 새로운 建物を 짓는 것이 要望된다.

2) 한편 國會圖書館은 1951년에 建立되었는데 國會議長이 監督權을 가지고 있다. 역시 1963년에 公布된 國會圖書館法에서는 이 圖書館은 “圖書 및 其他 圖書館資料를 蒐集하여 國會議員의 職務遂行에 資함과 同時에 圖書館奉仕를 함”을 要求하고 있다. 本調查團員의 經驗으로는 國會議員의 “職務遂行에 資하는데” 必要로 하는 圖書는 國立中央圖書館에서 一般大衆을 위하여 蒐集되는 것과 같은 總括的인 範圍의 圖書들이 다.

國會圖書館은 現在 約 10萬卷의 藏書를 保有하고 있다. 大衆性을 띤 國立中央圖書館과 같이 國會圖書館은 活潑한 出版物 交換業務를 하고 있고, 몇가지의 國家書誌奉仕를 하고 있으며 또한 韓國에서 出版되는 圖書를 納本받기도 한다. 國會圖書館은 國會議員 120名에게 奉仕하기 위하여 116名의 職員을 가지고 있고, 그 目的으로 10年前에 세워진 建物에 자리잡고 있다.

國立中央圖書館과 國會圖書館과의 任務限界가 分明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奉仕하고 있는 對象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圖書蒐集과 關聯된 活動範圍에 있는 것이다. 두 圖書館은 그들의 顧客들에게 충분한 奉仕를 하기 위하여서는 重複되는 圖書選擇, 購入, 編目, 交換, 保管이 必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自然的으로 書誌에 關된 業務와 他圖書館에 關한 業務의 國家的인 指導體系에 混亂이 惹起되고 있다.

韓國에 있어서의 圖書館 發展에 責任을 가지는 最高의 機關을 自處하는 두개의 國立圖書館의 存在는 共鳴할 수 없는 狀態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不必要한 人的 및 物的 浪費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즉 單一한 國家機構가 필요하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많은 機關들이 必要하다 할지라도 業務自體는 統一的인 方向으로 나아가야 한다. 指導體系와 圖書館資源의 分散化가 韓國 圖書館 發展에서 當面한 가장 큰 問題거리이므로 두 圖書館의 差異點을 調停하고 單一 國立圖書

館計劃을 樹立할 수 있는 새로운 方案을 早速히 採擇하는데 가장 注力하여야 할 것이다.

在韓 外國圖書館

韓國에는 外國圖書館이 많지 않다. 그러나 몇 개 있는 圖書館이 韓國 圖書館界에 미치는 影響은 認定되어야 한다. 美國公報院圖書館이나 美8軍圖書館은 多幸하게 지금까지 數年來 훌륭한 職員을 確保해 왔고 그 中의 몇 사람은 이 地方圖書館문제에 대하여 認定될만한 指導와 激勵을 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가장 現代的인 奉仕概念위에서 組織되고 그리고 效果的으로 運營되는 그러한 外國圖書館의 存在는 示範圖書館으로서 公認된 影響을 주고 있다.

外國圖書館은 韓國人들에게는 主要한 圖書의 補給處는 아니다. 그러나 때로는 圖書館相互貸借를 통한 그 藏書의 利用이 可能함으로써 韓國圖書館藏書의 補助的인 役割을 하기도 한다.

書誌統整과 奉仕

韓國은 일반적으로 必要하다고 인정되는 몇 가지의 書誌統整業務를 이미 하고 있으나 모든 것이 最近에 시작된 것이며 慾求를 만족시킬 만한 總括的인 것은 아니다.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基本的인 書誌奉仕는 새로 出版되는 圖書에 대한 國家書誌의 作成이다. 1945년부터 1962년까지에 出版된 것에 대한 “韓國書目”은 1964年 國立中央圖書館에 의하여 作成, 發刊되었다. 이미 2卷의 出版物總目錄年報가 出版되었으며 每年 계속하여서 年報가 出版될 것으로 期待된다. “韓國書目”은 韓國十進分類表에 의하여 主題分類되었고 著者索引이 있으므로 出版된 圖書를 主題와 書名 양쪽으로 찾을 수 있다. 1963년에 公布된 圖書館法에 따라 國立中央圖書館이 納本處로서 指定된 이후에 編纂된 出版物總目錄은 解放後 出版된 것을 收錄한 韓國書目보다 훨씬 完壁하게 收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韓國定期刊行物記事索引”이 있다. 1962年 韓國圖書館協會에 의하여 처음으로 시작된 이 重要한 編纂은 1年 뒤에는 國會圖書館에 引繼되었으며, 그곳에서는 季刊으로 出版하기 前 2年동안은 年刊으로 發行하였다. 納本法에 따라 納本되는 定期刊行物에서 編纂하는데 이 事業에는 11名의 專任職員이 담당하고 있다. 1,500部를 發行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의 主要한 書誌奉仕는 最近에 시작되었다. J. McRee Elrod 氏 個人에 의하여 適切하게 編纂된 “1890~1940 사이에 韓國에서 出版된 英文雜誌索引”이 1965年 國會圖書館에 의하여 出版되었으나 韓國

語로된 雜誌는 아직 出版되지 못하고 있다. 現在로서는 最優先的으로 考慮될 수 없다 하더라도 “韓國出版物總目錄”과 “韓國雜誌索引”이 모두 遡及해서 編纂되기를 希望한다. 그러나 그러한 事業이 매우 重要하기는 하지만 많은 問題點도 介在되어 있다.

現時點에서 볼때 다른 書誌作業이 더 重要性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編纂하기에는 너무도 甚한 일이라는 하지만 모든 韓國圖書館에 所藏된 圖書에 대한 國家綜合目錄은 圖書館相互協力을 하기 위한 어떠한 效果的인 計劃에 있어서나 가장 요긴한 주춧돌이 될 것이다. 그러한 綜合目錄編纂을 위한 努力이 아직 甚한 程度에 達하지 못하고 있으나 國立中央圖書館에서는 綜合目錄作成을 企劃하고 있고, 이미 그러한 事業에 대한 質問書를 모든 圖書館에 發送하고 그들의 自進協助문제와 協力能力에 대한 情報를 蒐集하고 있다. 國家綜合目錄을 計劃하고 있는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와 같이 韓國에서의 主要한 障害도, 協同目錄에 대한 것은 차지하고, 많은 地方圖書館들이 그들 자신의 圖書館에서의 利用에 필요한 充分한 藏書目錄도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한 點이다.

現時點에서 韓國의 圖書館相互協力문제에서 이와 同等하게, 아마도 더 重要하게 생각되는 것은 물론 韓國圖書館이 所藏한 定期刊行物과 逐次刊行物의 綜合目錄作成이다. 그러한 逐次刊行物에 관한 어느 정도의 情報는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KORSTIC)에 의하여 蒐集되고 있으나 이 機關에서는 전체적인 事業을 計劃하고 있지는 않다. 韓國의 圖書館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보다 더 많은 圖書와 雜誌를 必要로 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國家綜合目錄과 逐次刊行物綜合目錄을 통하여 그들의 藏書를 正確히 알 수 있고 또 널리 알릴 수 있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資料를 보다 널리 活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의 事業은 가장 優先的으로 다룰 必要가 있는 것들이다.

現時點에서 留意할만한 價値가 있는 다른 書誌事業은 모든 韓國新聞을 마크로 필름에 收錄, 保存하는 일이다. 新聞은 항상 量이 많고, 자주 使用되지는 않으며, 그리고 保存壽命이 짧은 종이에 印刷되어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新聞은 한 國家의 發展에 관한 거의 모든 面에 대한 情報의 根源으로서 대단한 重要性을 가지고 있다. 現在 주로 國立서울大學校에서 少量의 新聞을 마이크로 필름에 收錄하는 作業을 하고 있으나 強力하고 總括的인 國家計劃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韓國에서 現在 缺乏되고 있는 또 하나의 書誌奉仕는 印刷目錄카드業務이다. 韓國에 있는 두서너트의 圖書

館資料簡에서 圖書館에 販賣하기 위한 몇 種의 카아드를 비교적 成功的으로 印刷해 내고 있으나 圖書館人들은 너무도 많은 語彙가 포함되어 있고, 供給이 너무 늦고 그리고 널리 쓰이기에는 너무도 비싸다고 느끼고 있다. (一枚當 美國貨幣로 約 5센트) 印刷카아드를 利用할 수 있는 大部分의 國家에서는 國立圖書館에서 製作되고 있는데, 가까운 將來에 國立中央圖書館에서 印刷目錄카아드의 製作과 圖書館에의 販賣를 計劃하고 있다는 것은 特記할만한 일이다.

만일 이러한 모든 期望되는 書誌業務가 達成된다면 圖書館相互協力을 위하여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韓國圖書館에는 매우 圖書量이 적으므로 慣例的인 圖書館相互貸借은 사실상 不可能할 것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느끼고 있고, 또 어느 정도 그것은 正當하다. 그러나 그와같은 圖書의 不足은 利用할 수 있는대로 國家的으로 最大限 活用하여야함을 立證한다. 圖書館 藏書는, 어떤 때에는 相反되기도 하지만 두 가지의 性格을 가지고 있다. 藏書는 그것을 所有하고 있는 機關의 財産이기도 하고 또한 그것은 모든 人間의 知的 遺産의 一部分이므로 어디 있는 學者이던지간에 그것을 必要로 하는 學者들에게는 可能한 限 自由로 利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努力을 기우려야 한다. 위에 言及한 두가지中의 後者는 全國의 圖書館藏書에 대하여 現在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넓은 知識이 없이는 韓國에 있어서의 最大限의 利用을 達成할 수 없다는 것은 明白한 일이다.

專門職의 發展과 支援

專門協會

韓國圖書館協會는 1945年 8月 設立되었다. 오늘날 이協會는 會費와 寄附金과 每年 文敎部에서 支給되는 少額의 補助金으로서 運營되고 있다.

圖協의 目的은 圖書館發展과 그의 業務向上을 위한 支援에 관련된 것이라고 要約할 수 있다. 圖協은 常任理事會, 評議員會 및 理事會 그리고 대부분의 圖書館團體의 特徵인 일반적인 專門委員會로 構成되어 있다. 韓國圖書館協會는 學校 및 公共圖書館을 위한 基準을 發展시키는데 도움을 주었으나 아직 大學圖書館分野에는 손을 못대었다. 協會에 加入하기 위하여서는 個人은 最少限 大學課程 18學點을 必야만 한다. 300機關에 있는 約 400명이 現在 加入되어 있다. 圖協의 1966年度 事業費는 1,000萬원이다.

圖協의 重要한 事業은 圖書館의 業務와 運營向上을 위한 몇개의 特別한 研究와, 이따금씩의 會議準備 및 現職者訓練을 위한 講習計劃, 圖書館學分野에 관한 資料의 編輯 및 出版, 韓國圖書館 相互間의 資料交換

育成, 韓國圖書館週間活動에 대한 管理, 圖書館統計의 蒐集, 그리고 韓國의 여러 圖書館에 대하여 圖書館關係 出版物 및 產業機關, 銀行 그리고 政府機關에서 發行한 出版物의 配布 등이 包含되어 있다. 圖協은 또한 文敎部와 아세아財團이 後援하는 司書教師를 위한 養成講習도 實施하고 있다.

外部의 輿論은 韓國圖書館協會는 아직도 圖協理事會를 構成하고 있는 大學圖書館長이 大部分인 높고 오래된 教授들로서 支配되는 一團의 個人들이 代表하고 있는 機關이라고 보고 있다. 專門職으로서 訓練받은 젊은 圖書館人들을 위한 충분한 자리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韓國圖協은 圖書館界에 重要한 貢獻을 했으며 또한 重要한 圖書館 關係立法을 위하여 努力하였다. 그러나 主로 支援不足 때문에 圖協은 現在 韓國의 圖書館人들이 必要로 하는 指導의 力量을 發揮하기에는 연약하고 無能力한 것 같이 보인다.

韓國圖協의 弱點의 一部로는 資金調達을 위한 競爭的인 交渉과, 基本的인 運營을 維持하는데 必要로 하는 場所, 職員 및 最少限度의 資金缺乏에서 오는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圖協本部의 缺陷등에서도 볼 수 있다.

圖協 收入金의 거의 半이 文敎部의 補助金에서 充當되는 限 이 協會가 크게 影響力을 發揮하거나 또는 專門職의 水準, 俸給, 政府奉仕의 向上等等과 같은 分野에 있어서 충분한 客觀性을 가지고 다룰 수 없을 것이다. 이의 解決方案으로는 個人 및 團體會費로서 이協會에 대한 支援增加와 韓國政府에의 依存에서 脫皮하는데 충분한 資金을 個人들에게서 補助받는 길이다.

圖書館教育

韓國에 있어서의 圖書館教育은 近年에 시작되었다. 國立中央圖書館은 1946년에 圖書館學校를 開設하였으나 그후 5年 동안에 77名の 司書를 卒業시키기는 했어도 韓國動亂과 이 圖書館의 館長 및 副館長의 喪失은 이 機能을 마비시켰다. 硏究的인 圖書館學校는 1956年 延世大學校에 設置되었다. 이 學校에서는 大學卒業者에게 1年 課程의 圖書館訓練과, 4年인 學部課程 두가지가 實施되었다. 이와 같은 4年課程이 1959년부터 梨花女子大學校에서, 1963년부터는 中央大學校, 그리고 1964년부터는 成均館大學校에서도 實施되고 있다. 後記한 두 學校에서는 아직 卒業生이 나오지 않았지만 延世大學校의 各課程에서는 225名, 梨花大學校에서는 163名の 卒業生을 輩出하였다.

그밖에 司書教師를 위한 300乃至 320時間 訓練計劃이 있다. 文敎部 主催인 이 訓練은 서울地區에서는 梨花女子大學校에서, 그리고 地方에서는 韓國圖書館協會

가 主管하고 있다. 이 計劃으로서 1965~1966年 사이에 120名을, 그리고 아세아財團 援助計劃에 따라 60名을 더 訓練시켰으나 韓國의 7,598個校에 적어도 한 사람의 司書教師를 配置하여야 한다고 規定한 1963年 公布된 圖書館法의 要求를 充足시킬 수 있는 충분한 司書教師를 訓練시키기에 는 너무도 未及하다. 1965年末까지에는 겨우 이 나라에 訓練받은 사람이 358名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數는 점점 增加하고 있다. 法에서 要求한 모든 종류의 訓練받은 專門職司書의 數는 다음과 같다.

訓練받은 司書 1965

館 種	法的으로 要求하는 司書數	現在就業 할수있는 司書數	追 加 로 必 要 한 司書數	現在充當되 고 있는 人 員의 比率
公 共	237	54	183	23%
大 學	341	190	151	44%
學 校	7,598	358	7,240	5%
計	8,176	602	7,574	8%

統計의 出處: 韓國圖書館協會

現在 就業할 수 있는 訓練받은 司書 이외에 圖書館法에 拘碍되지 않는 特殊圖書館에 從事하고 있는 49名을 합하면 總專門職司書數는 651名이다.

단순히 必要한 人員數문제 이외에 圖書館教育分野에 있어서 몇가지의 問題點들이 있다. 그 하나는 前記한 “公共圖書館欄”에서 言及한 바 있지만, 國立이나 公共圖書館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競爭的인 公務員任用試驗에 應試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와 같은 試驗은 圖書館組織 및 運營같은 것에 限定되거나 또는 強調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言語學, 歷史, 數學, 行政學 等等 廣範圍한 것을 包含하고 있다. 理解할 수 있는 바와 같이, 學部에서 상당한 時間을 圖書館學課程에 全力한 卒業生들은 一般 敎養科目에 관한 限 더 잘 準備가 되어 있고 出題되는 정도의 初步的인 圖書館 문제에 대하여 充分할 정도를 몇 時間 家庭에서 準備한 경력밖에 없는 人文學科 卒業生보다 더 試驗에 失敗한다.

司書職을 위한 公務員任用試驗이 不適當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主張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4年間의 學部課程中 너무 많은 時間이 圖書館學에 割當되므로 그 結果 一般教育이 희생當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後者의 主張을 支持하는 몇몇 大學行政家——물론 公務員試驗에 拘碍받지 않는 그들——들은 단일 可能하

다면 충분한 一般的인 人文科學을 履修한 司書를 採用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大學 當局者들은 職員 採用時에는 항상 그러한 方向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두 가지 主張은 모두 그 裏面에 충분한 理由가 있다는 것은 疑心할바 없다.

韓國에 있어서의 圖書館教育에 대한 다른 問題點은 다른 發展途上에 있는 國家들이 當面하는 바와같은 文獻의 不足이다. 韓國에서 必要로 하는 인포오메이션을 提供할만한 韓國語로 된 圖書가 充分히 없으므로 圖書館에는 많은 量의 外國圖書가 쌓여 있다. 韓國 圖書館에 있는 藏書中 겨우 40%만이 韓國語로 되어 있다. 다른 言語로 된 圖書의 順位는 日本語 30%, 英語가 約 20%, 그리고는 中國語, 獨語, 佛語 및 其他로 되어 있다. 이러한 理由때문에 韓國의 圖書館에 있어서 는 英語, 日本語 및 中國語에 대한 能力이 最少限度로 要求되고 있다. 韓國에서는 漢文學課程은 圖書館學科에서만 敎授하고 있으므로 圖書館學을 專攻하는 學部 學生들이 敎養學課程을 통한 一般知識은 履修하여야 하는 많은 時間을 더욱 빼앗기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서울大學校에서 訓練된 司書를 더 輩出하도록 別途로 訓練課程을 設立하기를 提請하고 있다. 이 提請은 專門職司書들이 適當한 給料을 받고 그들의 專門的인 技術을 効果있게 發揮할 수 있는 충분한 자리가 넉넉하지 못하다기 보다는 그러한 司書가 不足하다는 것이 더 緊急한 問題인가 아닌가 하는 疑問을 提起하고 있다.

明白한 것은 이미 충분한 數의 常設된 訓練課程이 있고, 大學院教育(때로는 海外에서의 教育에 의하여 더 學究的인 것이 要求되기도 하지만)과 國內에서의 실제적인 經驗을 쌓는 것으로 補充한다면 專門職司書들이 訓練할 수 있는 機會를 選擇할 충분한 넓이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당장 必要한 것은 學校圖書館에서 奉仕하고 있는 敎師들과 그밖의 職員들의 資質向上과, 經驗이 적은 그리고 事務職 職員들에게 基礎的인 圖書館業務와 節次를 알게 하는 短期講習이나 現職者訓練이다.

韓國의 圖書館教育에 있어서 그러한 問題點이 있는 데도 不拘하고 圖書館學校와 그 卒業生들은 現在 이 나라의 指導的인 圖書館 財產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次號 完)